

아무리 궁해도...시페퍼스, 학폭 퇴출 이재영 접촉 '시끌'

최근 두차례 만나...구단 "동향 파악 차원" 해명에 팬들 "영입 어불성설" 신생구단의 신선한 이미지 퇴색 우려 등 "득보다 실 많다" 반발 잇따라

광주 AI페퍼스가 학폭으로 사실상 국내리그에서 퇴출된 배우선수 이재영(26)을 접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단의 '선수 동향 파악차원에서 만났다'는 해명에도 팬들은 "아무리 팀이 어려워도 영입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AI페퍼스 구단 관계자는 19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두 차례 이재영을 만났고, 단순히

선수 동향 파악차원에서 만났을 뿐 공식적인 영입 의사를 타진하거나 이를 결정할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영은 현재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연맹 규정상 3라운드 이전에만 등록하면 이번 시즌에 바로 뛠 수 있다.

구단 관계자가 이재영을 두 차례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구단의 영입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이재영 선수만 만나본 건 아니다. 전력 향상을 위해 여러 선수를 만났고, 그 가운데 이재영 선수도 있었다"며 "(이재영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몸 상태 같은 것만 가볍게 물어봤다. 원론적인 대화기간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페퍼저축은행이 이재영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전력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주의 한 팬은 "이재영을 영입하면 중위권 진입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구단이 잃는 게 너무

많을 것"이라며 "신생팀의 신선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팬들의 외면을 받게 될"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실 감독도 이재영 영입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감독은 "다른 구단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영 영입을 원하는)생각은 같을 것"이라면서도 "(사과와 같은) 선행 조치가 안 되면 (영입이) 안 된다.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대국민 사과라든지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재영을) 재가하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자중수를 구단이 들 이유도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그저 알아보는 수준에서 만나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에이스'였던 이재영은 지난해 2월 학창 시절 폭력 가해 폭로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이재영은 쌍둥이 자매인 그리스 여자배구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입단했지만, 부상으로 올 초 귀국해 재활 치료에 전념했다.

한편, AI 페퍼스는 2021-2022시즌부터 V리그에 참가한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첫째 3승 28패(승점 11)로 최하위에 그쳤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FA로 영입한 미들블로커(센터) 하혜진(26)이 어깨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불운까지 겹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19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도드림 2022-2023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각 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S칼텍스 강소희, 현대건설 이다현, KGC인삼공사 이소영, IBK기업은행 김수지, 흥국생명 김연경,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페퍼저축은행 이고은. /연합뉴스

감독들이 뽑은 우승 후보 '전통 강호' 현대건설 vs '김연경 영입' 흥국생명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 열려

지난 시즌 15연승으로 여자배구 신기록을 쓴 현대건설과 '배구 여제' 김연경(34)이 복귀한 흥국생명이 프로배구 감독들이 뽑은 우승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도드림 V리그 2022-2023시즌 개막을 앞두고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7개 구단 감독이 뽑은 1순위 우승 후보는 현대건설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시즌 여자부는 정규리그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 종료했다.

현대건설은 28승 3패, 승점 82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냈다.

한 시즌 최다 승점과 15연승으로 최다 연승 기록을 동시에 달성했다.

지난 시즌 전력을 대부분 유지한 현대건설에 대해 차상현(48) GS칼텍스 감독은 "작년과 변동 없이 현대건설이 가장 강할 거 같다"고 했다.

김호철(67) IBK기업은행 감독은 "현대건설과 김연경 선수가 돌아온 흥국생명이 후보다. GS칼텍스도 탄탄한 전력"이라고 말했고, 권순찬(47) 흥국생명 감독은 "연승 경기에서 붙어 보니 현대건설과 GS칼텍스가 탄탄한 팀이라고 느꼈다. 두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꼽았다.

김형실(70) 페퍼저축은행 감독 역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 GS칼텍스 모두 탄탄하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으니 외국인 선수가 두 명 있는 셈"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건설만큼이나 감독들의 '경계심'을 북돋우는 팀은 흥국생명이자.

김종민(48) 도로공사 감독은 "흥국생명이 조금

더 잘할 거라고 본다. 확실한 에이스 김연경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성형(52) 현대건설 감독은 "모든 팀이 우승 후보"라고 자세를 낮춘 뒤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같고, 부담감을 이겨내고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은 "저희는 중간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은 "그러면 저희는 중간보다 한 단계만 위에 있고 싶다"고 받았다.

페퍼저축은행 김형실 감독은 "지난 시즌은 3승 했는데, 이번 시즌은 10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자배구는 2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맞대결로 6개월간 열전을 이어갈 V리그의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박창환 전남남도 정부부지사 18일 오후 순천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2 순천·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대회' 개막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열전 돌입

5일간 17개국 2000여명 경쟁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2022 순천·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18일 순천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은 이대훈 대한자연경영 수석부회장의 대회사로 국제사이클연맹(UCI) 심판장의 건배제와 및 17개국 참가 선수단의 프레젠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아시아권 산악자전거대회 유지를 위해 국제경기 규모에 걸맞은 대회장 조성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27번째 대회를 유치, 개최하게 됐다.

대회는 4개 종목으로 나눠 치러진다. 산속 비포장길을 달리는 울림픽경기(XCO), 릴레이경기(XCR), 토너먼트(XCE)인 크로스컨트리 3종과 정상부에서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내리막길

을 달리는 다운힐이다.

19일부터 순천 용계산 일원서 아시아권 17개국 2000여 명이 참여해 5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 기간 선수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을 알리는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대회 종료 후에는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국내·외 산악자전거 동호인과 선수들에게 최적의 경기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창환 전남남도 정부부지사는 "아름다운 산과 숲 어디서나 즐겁게 놀면서 힐링하도록 산림레포츠 명소를 개발하겠다"며 "올해와 내년은 전남 방문의 해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해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 콘텐츠가 준비돼 있으므로, 전남에서 안전한 관광과 힐링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군민속씨름단 차민수 한라급 장사 등극

씨름 한라급(105kg 이하) '신예' 차민수(21·영암군민속씨름단)가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안산 김홍도장사씨름대회 및 제2회 안산 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에서 장사에 올랐다.

차민수는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대회 한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문형석(수원특례시청)을 3-0으로 제압했다.

올해 실업 무대에 데뷔한 차민수는 3월 장흥대회서 첫 한라장사 타이틀을 획득한 데 이어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8강에서 한술밥을 먹는 동료이자 장사를 10차례나 지낸 최성환(영암군민속씨름단)을 2-1로 물리친 그는 4강에서 우동진(창원특례시청)을 2-0으로 꺾었다.결승에 오른 그는 첫판 완배지기로 먼저 점수를 챙긴 뒤 안다리걸기와 들배지기를 연달아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한라장사(105kg이하)에 등극한 차민수(영암군민속씨름단)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체제 운영

광주시체육회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시체육회는 김광아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5월에도 이 전 회장이 민사 재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직위를 잃어 직무

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부회장은 회장 임기인 내년 2월 14일까지 직무대행을 맡는다.

시체육회는 오는 12월 15일 신입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이 전 회장은 광주의 한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

로 최근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한체육회에서 김광아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아담
- 2관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 3관 캐릭터, 정직한 후보2
- 4관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 5관 공조2: 인터내셔널
- 6관 블랙 아담
- 9관 블랙 아담
- 7관 씨네마클 캐릭터, 스마일, 나를 죽여줘
- 8관 씨네마클 오픈: 천사의 탄생, 미혹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④ **몰토 콰르텟**

일시 : 2022. 11. 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